불임의 시학

정 순 진*

1. 들어가며
2. 아내 폐기하기—「아내의 상자」
3. 다시 어머니와 손잡기—「거울에 관한 이야기」
4. 환상에서 벗어나기—「세상의 둥근 지붕」
5. 제도에서 벗어나기—「나비, 봄을 만나다」
6. 나오며

초 록

남성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와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으니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불임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는 일이었다. 그 동안 불임여성은 남녀 모두에게 불완전한 여성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불임이라는 존재의 위기에 당면해 여성은 비로소 자기 몸이 타자를 위한 공간으로만 여겨져 왔음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주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은 90년대 후반 발표된 소설 가운데 불임여성이 주된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 김인숙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 김형경의 「세상의 둥근 지붕」, 차현숙의 「나비, 봄을 만나다」를 대상으로 불임여성의 파멸의 양상과 그들이 모색한 치유의 방략을 고찰해 보았다. 네 편의 소설 가운데서 서술자를 남성으로 내세운 「아내의 상자」는 부부의 서사로, 가부장제사회에서 불임부부가 어떻게 파멸하는

* 대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지를 보여준다. 규격화된 도시문명 속에서 두 부부는 불임인 채로 남편은 평온으로 위장된 황폐한 껍데기의 삶을 살고, 아내는 의식이 마비된 채 폐기되고 만다. 이에 빈해 서술자를 여성으로 내세운 「거울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둥근 지붕」, 「나비, 봄을 만나다」는 페미니즘 가족 로망스로 불임여성이 모색한 불임 치유의 방략을 보여준다.

불임 모티프는 여성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기제로 작용한다. 모성만을 유일한 여성적 가치로 여기려는 가부장제에서 모성이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창조적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 확립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사실 남성은 모두 불임인데 불임의 불모성을 문제삼는 것은 언제나 여성이다. 불모성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어 온 가부장제의 불모성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불임 치유의 방략은 필수적인 일이다.

1. 들어가며

역사 이래로 여성 고유의 존재 의의는 자녀 생산과 양육에 있었다. 남성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와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함에 따라 여성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으니 이 이데올로기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여성은 자신이 태어난 집을 떠나 가장 낮은 지위로 남편의 집안에 편입되어 들어가 아들을 낳아 기름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져갔는데 울프는 이 현상을 '자궁가족'[1]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 사회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충성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아들을 낳아 기르기만 하면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동안의 노고와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불임이라는 것은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는 일이었다. 모든 여성을 어머니가 될 여자와 어머니가 된 여자로만 구분하는 사회에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여자는 최후의 식민지 중에서도 최악의

1) 임돈희, 「여성과 가족관계」,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동국대 출판부, 1986). 조혜정,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박영옥 외, 『한국여성연구』 1(청하, 1988), pp.248~250 재인용.

상황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식민지로 남아 있을 영역인 것이다. 페미니즘 시학에서 불임 모티브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여성문학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정신과 육체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놀란다. 그러나 항상 차양을 내리고 있는 문학은 진정한 문학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정신과 육체-은 표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의 과정일지라도."[2]라고 말하는데 불임의 경우 아직까지도 차양을 내리고 있던 영역이었다.

그 동안 불임여성은 남녀 모두에게 불완전한 여성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여성은 정상적인 삶이 파괴될 때 자신의 실제상태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정상상태의 파괴와 위기의 경험에서 여성은 사회적 관계의 실상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3] 모성의 경우도 모성이 파괴되는 위기에 직면해서야 여성은 비로소 자신을 억압하는 모성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사색하기 시작하며 대안을 모색해 보게 된다. 불임이라는 존재의 위기에 당면해 여성은 비로소 자기 몸이 타자를 위한 공간으로만 여겨져 왔음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주체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90년대 후반 발표된 텍스트 중 불임여성이 주된 작중인물로 등장하는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 김인숙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 김형경의 「세상의 둥근 지붕」, 차현숙의 「나비, 봄을 만나다」를 대상으로 불임 여성의 파멸의 양상과 그들이 모색한 치유의 방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작가의 텍스트라도 서술자를 남성으로 내세운 「아내의 상자」는 파멸의 양상을 보여주고, 서술자가 여성인 나머지

2) 엘레인 쇼월터, 박경혜 역, 「황무지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평」, 『페미니즘과 문학』(문예출판사, 1988), p.38 인용.

3) 마리아 미에스, 「여성해방주의 연구 방법론을 위하여」, G.볼스·R.D.클레인 편, 정금자 역, 『여성학의 이론』(을유문화사, 1986), p.172 인용.

세 텍스트는 치유의 방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같은 문제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되느냐에 따라 서술의 형식은 물론 내용까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네 편의 텍스트에 공통되게 나타난 서사의 특징은 사건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건들의 연쇄가 소멸되고, 장면·삽화·내면의식 등이 병치된 병렬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구성은 구문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라는 문학적 구성의 두 방법 중 계열적 관계의 방법을 따른 것이다. 선택적·연상적 관계로도 불리는 이 관계는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야콥슨에 따르면 은유의 방식이다.[4] 원래 서사는 인접성의 원리로 구성되는 환유의 방식을 주축으로 하는데 서사에 은유의 방식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최근 서사예술의 흐름이기도 하다.[5]

2. 아내 폐기하기—「아내의 상자」

이 텍스트는 일탈한 아내를 폐기한 사건을 서술자이자 작중인물인 남편이 1인칭으로 서술한 것이다. 경험자아가 경험한, 인생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중심에 놓이고 서술자아의 현재의 상태를 앞뒤에 배열한 전형적인 회상 형식을 취하고 있는 텍스트는 군더더기 없이 모든 부분이 주제에 집중되고 통일된, 남성적 문체와 형식을 보여 준다.

이 텍스트가 '현대인의 존재론적 비극성'[6]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은 규격화된 도시문명이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나병철, 『소설의 이해』(문예출판사, 1998), p.339 인용.

5) 이남호, 「인접언어의 혼란 Ⅱ」, 『세계의 문학』, 1994.봄, pp.13~41 참조.

6) 최인호, 「현대인의 존재론적인 비극성 드러낸 수작」, 『1998년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문학사상사, 1998), p.13 인용.

인물의 성격지표 중에서 담화의 형식과 내용은 인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7] 담화의 형식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의 말투와 아내의 말없음이다.

· 이따금 아내는 그렇게 나를 당황하게 그리고 짜증나게 했다.[8]
· 내 입에서는 기어코 이죽거리는 말이 튀어나왔다. 아내는 말을 조리 있게 혹은 길게 할만큼 논리적이지 못했다.[9]
· 너무 필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어이가 없어졌다.[10]
· 나는 아내를 탐탁잖은 눈으로 힐끗 보았다.[11]
· 아내나 좋아했을 이야기였다.[12]

스스로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내를 무시하는 이런 말투는 필연적으로 이들 부부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 텍스트에는 일방적으로 남편의 생각과 가치만이 서술된다.

여기에 비해 아내의 담화형식은 자신 없는 목소리이거나 아니면 아예 목소리가 없다.

· 「벨 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도 늘 그렇듯이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자신 없어 했다.[13]
· 으레 그렇듯이 '내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지만'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그녀의 이야기.[14]
· 그녀는 조그맣게, 알았어요, 라고만 했을 뿐 화를 내거나 거부하는 기색은

7) S. 리몬-캐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문학과지성사, 1985), p.98 인용.
8) 은희경, 「아내의 상자」, 『1998년 제22회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p.37 인용.
9) 위의 글, p.40 인용.
10) 위의 글, p.42 인용.
11) 위의 글, p.45 인용.
12) 위의 글, p.57 인용.
13) 위의 글, p.31 인용.
14) 위의 글, p.38 인용.

아니었다.[15]

·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말이 없었다.[16]

· 아내는 말수가 적어졌다. 말 자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일도 없어졌다.[17]

여성을 침묵하게 하는 것은 여성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성의 힘을 거세하려는 남성의 의지가 행해지는 방법이다.[18] 이런 현상은 여성의 말을 수다나 잔소리로 몰아 부쳐 공식적인 목소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부장제사회의 언어현상이다. 텍스트에서 고백해야 할 주된 경험이 아내의 경험임에도 아내에게는 목소리를 주지 않는 것은 가부장제에서 구현되는 서술의 원리로 자신이 폐기당하게 되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아내는 목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서술자이며 작중인물인 남편은 조직화되고, 규격화된 삶을 거부감 없이 즐기는 상식적인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TV 마감뉴스를 보고서야 잠자리에 들고, 증권시황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시사주간지를 탐독하는 남편의 습관적인 행동도 전형적인 소시민형 인물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남편은 아내도 '시시하다고 할 만큼 평범한 사람'이라고 직접 한정해서 서술한다. 그러나 아내의 성격지표를 보완하는 아내의 상태와 행동은 직접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

아내는 불임이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 아내는 "나도 거세당한 거예요. 나도 피가 나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당한 거예요."라고 말한다. 즉 아내는 자신이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할 열성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불임여성이 갖게 되는 죄책감과 열등감의

15) 위의 글, p.42 인용.

16) 위의 글, p.45 인용.

17) 위의 글, p.46 인용.

18) 크리스틴 부르크-로즈, 이경희 역, 「기호학적 대상으로서의 여성」, 『페미니즘과 문학』, p.112 인용.

표현이다. 열등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존재의 위기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실제상태를 의식하려고 하지 않는다.

> 언제 봐도 단정한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 언제 봐도 그린 듯이 정확히 배치된 놀이터와 벤치와 나무와 주차 라인과 보도 블록, 상가 앞에 오가는 사람들도 언제 봐도 그렇게 정한 듯이 몇 명. 비슷한 비닐봉지, 비슷한 옷차림. 하늘도 언제 봐도 대충 그런 색의 지루한 안정의 빛이고 공기의 냄새마저도 도식적이라고 아내는 말했다.[19]

인용부분은 '나머지 모든 시간에' 잠을 자는 아내의 습관적 행동인 잠에 대해 모방성 간접화법의 양식[20]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도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도피하는 유일한 행동이 '잠'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잠이란 의식의 세계를 거부한 의식의 마비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내는 자신의 내면을 상자에 담아 뚜껑으로 덮어버리듯 '세상을 향해 빗장을 지르고' 스스로를 은폐해 버린다. 남편은 아내가 이런 자폐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다. 남편에게 필요한 아내는 가사담당자이며, 그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내의 자폐상태를 깨뜨리는 것은 이웃집 여자이다. 외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아내의 외출은 여전히 수동적이다. 게다가 아내가 서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경험한 외출의 실체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서술자인 남편이 목격한 것만 파편적으로 서술된다.

>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안은 어두웠다. 정규 방송이 끝나 지글거리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달빛처럼 부옇게 침대로 비쳐들었다. 그 침대에 아내는 혼

19) 은희경, 앞의 글, p.32 인용.
20) S. 리몬-캐넌, 앞의 책, p.162 참조.

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내 곁으로 갔다. 베개에 긴 머리를 탐스럽게 흩뜨리고 혼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의 하얀 옆얼굴.

시트를 젖혀 보니 그녀는 알몸이었다. 유리로 된 천장 너머에서 어둠이 납작 엎드린 채 그녀의 벗은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21]

외출에서도 잠에 빠진 아내의 외출은 "부정적 현실에 의해 촉발된 저항과 욕망, 자생적으로 생겨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존재 욕구, 자기 정체성 확립에 대한 열망"[22]으로서의 기호가 되지 못한다.

이 텍스트에는 아내와 은유관계에 있는 몇 가지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불임파리'이다. 불임파리는 불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이지만 사실 아내는 자발적인 불임이 아니라 규격화되고 도식화된 현대문명사회에 의해 거세되었으며 스스로도 그 실상을 은폐시킨다는 점에서 불임파리와는 차이가 있다. 불임파리만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 그것이 아내의 삶인 것이다.

두번째는 '연록색 산속의 오솔길'이다. 아내가 가고 싶어하던 그 숲길은 그러나 험하고 좁을 뿐만 아니라 무덤으로 가득 뒤덮인 거대한 산으로 이어져 있다. 탈출은 환상일 뿐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 암시하는 이 이미지 역시 '길들여진 상상력과 사고의 허를 찌르는'[23] 것으로만 칭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이고 왜곡된 탈출만을 대상으로, 탈출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탈출 자체를 헛된 일로 몰아가며 현 상황에 안주하게 하는 보수적이고 체제유지적인 음모와 결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아내의 상자', '마르고 더러운 강아지', '포뿌리', '극장 위에 잃어버리고 두고 간 장갑'은 모두 아내의 은유이다.

---

21) 은희경, 앞의 글, p.52 인용.

22) 이우정, 「외출, 부재하는 공간을 찾아가는 기호」, 『한국 여성 시학』(깊은샘, 1997), pp.284~285 인용.

23) 오정희, 「길들여진 상상력과 사고의 허를 찌르는 작품」, 『1998년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p.15 인용.

남편 삶의 은유는 '늘씬한 포장도로'이다. 규격화된 현대도시문명에 순응해 살아가는 삶은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이라 평온하지만 그 평온은 다만 껍데기일 뿐이다. 아내의 외출 사건 이후 자는 아내를 깨웠더니 자동인형처럼 저녁준비를 하고, 밥을 먹는 삽화가 암시하듯 그 평온은 황폐한 껍데기일 뿐인 것이다.

이 텍스트에서 서술자이면서 작중인물인 남편은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을 겪으며 각성의 계기와 맞닥뜨리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포장도로를 달리던 관성으로, 마치 물건을 쓰다가 버리듯이 아내를 폐기해 버리고 말지만 전속력 질주만이 허용되는 포장도로에 서 있는 그 역시 폐기되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부정적인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이 저항하는 인물을 폐기해 버리는 이 텍스트는 여성의 현실뿐만 아니라 남성의 현실까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사물화를 통해 사물화에 저항하는 방식[24]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내의 외출이 자발적인 외출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자기인식을 바탕에 둔 탈출이나 저항의 방식이 아니었음을 부각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폐기해 버리고 말아 비극적 현실을 전복시킬 통로를 차단해 버린 아쉬움이 남는다.

3. 다시 어머니와 손잡기—「거울에 관한 이야기」

이 텍스트는 딸이 어머니를 만나 거울을 사드리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하게 된 갖가지 생각을 1인칭으로 서술한 것이다. 1인칭 서술의 특징은 화자의 서술행위의 동기가 그 자신의 존재론적 요구로부터 생겨난다는 점이다. 1인칭 서술자아(서술자)는 경험자아(인물)가 중요한 사건을 통해 후회·개심·변화 등을 겪은 상태와 일치한다. 따라서 서술자아는 그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언급을 하려는 충동을

24)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문학과지성사, 1984), pp.44~46 참조.

갖게 된다. 이처럼 경험과 서술이 상호연관됨에 따라 1인칭 서술은 '고백의 형식'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갖게 되고 고백 기능을 위해 텍스트는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개인화된 시점을 갖게 된다.[25]

서술자이자 인물인 나는 세 번이나 아이를 유산한 불임여성이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지난날의 기억을 잃어 가고 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아이를 자꾸 유산하는 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그리고 죽음(어머니는 실제의 죽음으로, 나는 여성의 죽음으로)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건널목 앞에서 갈 길을 잃고 서성이는 유사성을 가진 은유의 관계로 설정된다.

나는 불임의 원인을 세상과 현실에서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첫 번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 남편이 했던 기도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내 아이가 그의 신의 품에서 비로소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기도했다. 아이를 추악한 이 세상이나, 내 태중에서보다 신의 품에 있게 한 것을 그의 신께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그에게, 유산이 된 나의 아이는 내 태중이라는 정거장을 잠깐 거쳐 천국에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 아이였다.[26]

인용 부분에서 이 세상은 추악하며, 평화와 행복은 신의 품에서만 가능하다는 남편의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성자화된 남편의 허상화 및 종교 문제의 긴 개입이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않는다"[27] "주인공과 남편, 불임 등의 이야기들은 서로 어설프게 겉돌고 있는 듯하다"[28]는 평이 있지만 이 텍스트에서 형상화시킨 남편은

25) 나병철, 앞의 책, pp.452~453 참조.
26) 김인숙, 「거울에 관한 이야기」, 『1998년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 pp.184~185 인용.
27) 이재선, 「삶의 아픔과 손상에 대한 신성한 형상화」, 앞의 책, pp.10~11 인용.
28) 오정희, 앞의 글, p.14 인용.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환유이다. 가부장제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여자에게 가사와 육아를 맡기고 남성에게는 가사와 육아를 제외한 영역을 할당하고는 출산과 양육, 가사는 동물적 영역이므로 열등한 지위를,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영역이야말로 동물과 다른 인간적인 영역이라며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공격성·지력·힘·유능함을 남자다운 기질로, 수동성·무지·순종·정절·무능을 여자다운 기질로 이념화시켜 교육, 세뇌시킨다. 밀레트는 이 세 범주가 생득적 권리에 의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성의 정치의 정치적 구성요소, 사회학적 구성요소, 심리학적 구성요소로 이 세 요소는 상호의존 또는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29]

남녀의 대비를 하늘과 땅, 인간과 자연, 이상과 현실로 치환시킨 가부장제사회는 전자에겐 우월한 지위를, 후자에겐 열등한 지위를 주었다. 텍스트에서 서술자이며 인물인 '나'는 땅에 발 딛고 있으면서도 땅을 무시하는 문화에서, 땅의 역할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가 없어서 거부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내일, 거기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며 죽음을 더 많이 믿는 남편의 앞에서 '나'는 늘 죽어 있는 것이다.

텍스트를 관통하는 '거울 깨기/거울 사드리기' 모티프는 '모녀의 분리/결합'의 은유이다. 거울을 깨기 이전 어머니와 딸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던 원체험으로 나는 일곱 살 때 습진으로 손이 짓물러 다른 사람은 모두 피해도 어머니만은 진물이 줄줄 흐르던 그 손을 꼭 잡고 약국을 순례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한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와 딸은 서로 손을 놓은 상태이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나에게 깨진 거울이며, 불임의 딸은 어머니에게 깨진 거울이다. 딸이 거울을 다시 사드리는 것은 깨진 거울을 복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어머니가 딸을 잃는 것, 딸이 어머니를 잃는 것은 여성에게

29) 여성사회연구회, 박영숙 옮김, 『여성사회학』(한울, 1985), pp.102~103 참조.

가장 커다란 비극"[30]이기에 딸은 존재가 무화되려는 위기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어머니와 재결합하고자 한다. 그 소망이 거울 사드리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합은 한쪽만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딸은 거울을 사드리고, 어머니는 그 거울을 받아들인다. 어머니 역시 딸을 거울로 삼고 싶은 것이다. 텍스트 말미에 룸미러를 통해 어머니를 보는 행위는 어머니와 거울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룸미러로 확인하는 어머니는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거울이 되기에 충분한, 당당한 모습이다.

> 어머니가 차도 아래로 내려선 게 바로 그때였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다 말고 손가방을 활짝 열어 무언가를 꺼낸다 싶던 어머니는, 그 쨍한 햇살 아래 검은색 우산을 활짝 펼쳐 들고 씩씩하게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하셨다. (중략) 그러나 그때, 나는 어머니가 거울의 앞면을 통해, 저쪽 거울의 뒷면까지 걸어가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울의 앞면과 뒷면 사이……그 사이에는 더 이상 건널목이 아닌 강물이 출렁이며 흐르고 있었다.[31]

텍스트의 서두에서 어머니는 건널목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고 건널목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치매의 상징인 검은 우산을 펼쳐 들고 씩씩하게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다. 이 걸음은 단절된 거울의 앞면에서 뒷면까지 이어진다. 건널목은 건너지 않으면 단절과 분리의 상징이지만 건너가면 연속과 결합의 상징으로 바뀐다. 길을 잃어버리고 서성이고 있는 나도 어머니처럼 길을 찾아 당당하게 단절의 상징을 연속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건널목은 이처럼 길을 잃어버린 채 서성이는 모녀가 서 있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모녀를 상징하기도 한다. 분리되어 있던 모녀, 단절되어 있는 거울의 앞과 뒤, 길의 이쪽과 저쪽은 건너는 행위를

30) 아드리엔느 리치,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평민사, 1995), p.295 인용.

31) 김인숙, 앞의 글, p.196 인용.

통해 지속과 흐름의 상징인 강물로 바뀐다.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여성의 현실은 무엇일까? 텍스트에서 서술자이며 인물인 나에게는 불임여성으로 살아가기이며, 어머니에겐 치매환자로 살아가기이지만 텍스트는 콜라쥬 기법을 통해 그 범위를 지구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로 확대시킨다.

> 전세계에서 매일 8,5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1분마다 여성 1명이 임신 관련 질환으로 숨지고 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2,2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에이즈가 아닌 성병으로도 매년 1백만명이 숨지고 있다. 매년 성병에 새로 감염되는 3억 3,300만 명 가운데 절반은 십대 청소년이다. 뿌리깊은 관습의 영향으로 매년 여성 200만 명이 성기 훼손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고 5-15세의 여자 어린이 200만 명이 해마다 매춘시장에 팔려 가고 있다. 매년 58만 5,000명의 여성이, 즉 1분마다 여성 1명이 임신 관련 질환으로 숨진다. 특히 출산 후유증으로 불구자가 되는 여성은 이보다 몇 배나 많다. 해마다 여성 7만 명이 인공 유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있다.[32]

콜라주는 현실의 소재를 변형 없이 텍스트 속에 오려 붙이는 기법인데 기록의 신뢰성에 힘입어 직접성의 효과가 강화된다. 콜라주는 현실의 문맥과 소설의 문맥이 중첩되는 이중성을 보이기 마련인데[33] 이 텍스트에서는 전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억압적이고 충격적인 현실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낸다.

건널목 건너기가 일종의 은유라면 내포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또 직접 어머니의 담론으로 나타나 있지도 않지만 딸은 그것을 충분히 추론해 낸다.

> 어쩌면 어머니는 아직도 내게 하실 말씀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것……억울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눈을 감아 보

32) 앞의 글, p.186 인용.

33) 나병철, 앞의 책, pp.350~353 참조.

지 않았다는 것……아직은 무사한 삶에 감사하다는 것……그런 말들 말이다.[34]

여성에게 현실은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처하게 되는 억울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눈감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 하더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건널목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다. 단절과 분리의 표지인 건널목을 건넘으로써 흐름과 연속의 표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손잡고, 여성들이 손잡고 건넘으로써 이 단절과 분리의 공간이 흐름과 연속의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4. 환상에서 벗어나기-「세상의 둥근 지붕」

이 텍스트도 서술자이면서 작중인물인 승주가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어머니 연배의 여인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다 떠나보냈다 다시 데리러 가는, 인과관계가 느슨한 체험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진행된 사고를 서술한 것이다.

승주는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사의 지적에 남편과 별거한 채 자신을 돌아본다. 승주에게 있어 불임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어머니의 핏줄이 감당해야 할 유전질환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심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죄의식에서 비롯된 모녀관계의 단절과 그것에서 비롯된 어머니 되기의 거부 때문이다. 텍스트는 어머니 연배의 여인과 함께 지내면서 혈연과 사랑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머니의 죄의식을 벗겨 주면서 단절된 모녀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1) 하지만 승주는 다르게 생각했다. 혈육이란 바로 이럴 것이라고. 지긋지긋하지만 떨칠 수 없고, 진절머리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런 관계일 거라고.

34) 김인숙, 앞의 글, pp.194~195 인용.

그러므로 승주는 인정한다.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여인을 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칼날을 위로 보게 꽂으면 안 된다는 것, 목숨 가진 것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 여자는 똥자루가 짧아야 한다는 것, 그런저런 잔소리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기꺼움의 밑바닥에는 그것이 가족들이 서로 주고받는 삶의 온기이며 지혜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35]

2) 승주는 그 진저리의 정체가,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안다. 늘 그런 온기에 속아왔다. 아니, 속는 줄 알면서도 쏟아지는 그 따뜻함 속으로 한사코 걸어갔다. 그 따듯함 속에 넋을 놓은 채 영영 잠들어도 좋다고 믿었다. 그러나 햇살에는 온기만 있는 게 아니다. 눈을 시리게 만드는 빛이 잇고, 온몸을 메마르게 하는 제습력이 있고, 주근깨를 돋게 하는 자외선이 있다. 허공에서 꼬물거리는 먼지 입자를 한순간에 드러내는 적나라함까지.-중략-

사랑도 그럴 것이라고. 온기와 평화만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시린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고, 고단한 피부를 꺼칠하게 하고, 감정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할 것이다.[36]

지긋지긋함과 떨칠 수 없음, 진절머리와 외면할 수 없음의 양극을 포용하는 것이 혈연임을 깨닫는 1)과 온기와 빛, 제습력과 자외선을 모두 포용하는 것이 햇살이듯, 사랑도 미움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깨닫는 2)는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깨달음의 요체이다. 양극을 똑같은 거리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포용력 있고 풍성한 것으로, 그것은 양극을 지름으로 만들어지는 원으로 상징된다.

모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승주가 기억하는 전형화된 어머니의 이미지가 극단적인 한 면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어머니는 늘 크고 따뜻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을 요술처럼 만들어내고,

35) 김형경, 「세상의 둥근 지붕」, 『96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현대문학사, 1996), pp.62~63 인용.

36) 위의 글, pp.77~78 인용.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가. 왜 모든 이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는가. 승주는 의심한다. 그런 믿음 뒤에는 무언가 거대한 계략, 인류가 다함께 공모해 온 음모나 술수가 있지 않을까. 저 마녀 사냥의 광기처럼.[37]

모성이 하나의 신화로 이용될 때 그것은 억압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38] 가부장제도에서 찬양되는 이상화된 모성은 그렇지 못한 어머니들에 대한 비난의 기제로 역이용되어 왔다.

양극을 다 인정하며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한 극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승주는 남편에게서 본다.

1) 언제나 상대적으로 승주의 우유부단함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의 말투.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분명하게 말하기.[39]

2) 승주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건 흰 거고 저건 검은 거야. 그러니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른 거야. 모든 게 그렇게 분명하다면 사는 건 한결 쉬울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든지, 이혼 서류를 정리하든지.

"되도록 빨리 결정해. 난 벌써 서른셋이야."

여전히 백미터 달리기 선수 같은 말투다.[40]

3)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승주는 여인의 마음을 제것처럼 이해한다. 이 길과 저 길 사이에 다리를 걸친 채 망설이는 사람의 마음, 스스로도 그런 자신에 대해 진저리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41]

---

37) 위의 글, p.74 인용.

38) Juliet Michell,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11/12.

39) 김형경, 앞의 글, p.20 인용.

40) 위의 글, p.39 인용.

41) 위의 글, p.46 인용.

말끔한 정장차림에 잘 빗어넘긴 머리의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는 1)에서 서술되듯 단정적이고 단호하다. 남편은 두 점 사이를 가장 짧게, 가장 빠르게 달리려고 하는 백미터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이다. 또 2)에서 서술되듯 모든 것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사람이다. 남편의 단점은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남편에 비해 승주는 이곳과 저곳의 경계에 걸쳐 있다. 따라서 승주가 사용하는 언어도 그런 마음을 따라 망설이고, 생각은 하면서도 말로 하지 못하며 주저하고, 과거와 현재가 넘나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 텍스트는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한 전형"[42]을 이룬다. 이런 언어는 삶이란 일상과 의식, 현실과 현상, 평온과 위기라는 양극 사이를 넘나드는 본질적이고 비규정적이며 불가지적이고 모호한 유동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승주는 삶의 한 면만 인정하는 남편과 같은 사람들이 모성도 한쪽 면만 극단적으로 부풀려 왜곡시킨 것임을 깨닫는다.

> 다시 어머니를 만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승주는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인류의 기억을 더 멀리까지 거슬러 오르면 다른 어머니도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반드시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
> 다시 어머니를 만난다면 승주는 말하고 싶다. 어머니가 느끼는 죄의식에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모성이란 인류가 공모하여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모든 환상은 쉽게 손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43]

어머니의 죄의식이 모성을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로 만든 모성 신화, 즉 모든 인간이 공모하여 만든 환상에서 생긴 것임을 깨달은 승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단절된 어머니와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으며, 어머니 되기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

42) 이동하, 「김형경 「세상의 둥근 지붕」」, 『96 올해의 좋은 소설』, p.82 인용.
43) 김형경, 앞의 글, p.75 인용.

텍스트에서 모색되는 단절된 모녀관계의 회복은 모성의 환상에서 벗어나기와 더불어 모녀의 범위 확대하기이다. 여인이 말하는 "일체 중생은 모든 과거에 부모였다"는 불교적 잠언도 모녀의 범위 확대에 기여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다음과 같은 승주의 인식과 실천이다.

> 승주는 늘 그랬다.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는 중년 여인을 보면 어머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엉거주춤 서 있는 노인을 보면, 시장거리에서 콩나물을 앞에 놓고 앉아 있는 여인을 보면, 어머니도 어디선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다. 승주는 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 어깨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여인의 가방을 들어주는 일, 그 일들은 모두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아주 먼 곳에라도, 아주 먼길을 돌아서라도 승주의 행위가 어머니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44]

혈연으로의 모녀관계에서 정신적인 모녀관계로 모녀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일그러지고 모난 우리 사는 세상은 둥근 지붕을 이게 될 것이다. 우리 사는 세상은 양극을 지름으로 그려진 공간, 원의 입체인 구(球)가 되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길이 막히거나 끊기지 않고 돌고 돌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5. 제도에서 벗어나기－「나비, 봄을 만나다」

이 텍스트는 서술자이면서 작중인물인 딸이 '반성자-인물시점'으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시신이 썩지 않아 이장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장에 들른 뒤, 집에 와 아버지가 썩기를 바라며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태우는 일을 서술한 것이다. '반성자-인물시점'은 지각적·심리적·관념적 수

44) 위의 글, p.28 인용.

준에서 인물시점이 지속되면서 서술의 차원에서 단순한 언어화 수준에서만 개입하는 것으로 화자의 개입이 최소화된 채 인물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서술자의 목소리를 줄이고 인물시점을 늘임으로써 독자가 인물에 동일시를 이루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내면경험의 지속적인 제시가 필수적이다.[45]

서술자이며 작중인물인 그녀는 결혼생활 십 년 동안 다섯 번이나 아이를 가졌지만 계속 유산한 여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골학교의 교사였는데 같은 학교의 여선생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자 불임이었던 본처는 자살하고, 그 여선생은 아이를 낳았다. 여선생은 본처의 죽음에 죄의식을 느껴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했는데 그 아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그녀인 것이다. 평생을 죄의식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생명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라고 여기며 그녀에게 돌부처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 자체가 고통이라는 생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되고 '삶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그녀는 당연히 생명을 생산하지 못한다. 제도에 억압되는 모성이 불임의 원인인 것이다.

그렇게 지내던 가운데 그녀는 남편이 백화점 여점원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다. 그녀는 풋풋한 생기와 활력을 지니고 나누어주는 그 여점원을 '봄'이라고 부르며 사랑하게 된다. 현재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고 봄과 동거하면서(텍스트에서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봄의 아이를 자신이 키우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녀의 두 가지 행동, 남편의 여자 사랑하기와 아이 아빠와 상관없이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는 남성중심과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 제도에 대한 도전이며 대안이다.

가부장제사회는 모든 생명을 긍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생명과 폐기되어야 할 생명을 제도로 완강하게 구획하고 있다. 혼인제도 바깥의 생명에 대해서는 모두 가혹하지만 서얼과 사생아의 경우를

45) 나병철, 앞의 책, pp.377~496 참조.

대비해 보면 그 가혹의 정도에도 남녀가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외도가 허용되던 시대에도 서얼차별을 했거니와 오늘날에는 법과 제도, 현실의 안팎에서 복잡하게 얼크러져 구획된 채, 생명경시 풍조의 근거로도 자리 잡고 있다.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강요되어 있는 이 제도와 이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성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과감하게 현재의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그것은 자매애적 유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제도로서의 모성에 대한 대안은 여성끼리의 유대이어야 한다는 리치의 말처럼[46] 이 텍스트에서 대안은 여성과 여성, 그것도 가부장제에서는 서로 적이어야 마땅한 여성들(그녀의 어머니와 그녀 아버지의 본처를 보라.)이 이룬 가족이다. 그리고 이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에게만 모성이 고착되어 가족이기주의의 원흉으로까지 지탄되는 편협한 모성이 정신적인 자매가 만든 가족의 극복된 모습을 보여준다.[47]

이 때문에 텍스트의 많은 부분은 이 놀라운 전환을 이루는 그녀의 사고를 서술하는 데 할당되어 있다. 그녀의 내면을 드러내는 장면서술은 유사성의 원리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장면은 그녀와 유비를 이루며 은유관계를 맺는다.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끄럼 없이 뿜어내는 삶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시장이다.

> 1) 시장 안쪽으로 길게 몸을 누인 시멘트 길은 아득하다. 아무 방어 없이, 엄살 없이 자신의 몸 속속들이 파고드는 따가운 빛살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 잘 벼린 칼날처럼 빛살이 꽂히는 시멘트 길은 깨끗하다. 쉽게 숨 돌리지 않는 침묵처럼, 희고 투명한 열기가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올올이 풀어지고 있다.[48]

46) 아드리엔느 리치, 앞의 책, p.268~320 참조.

47) 메리 델리는 비생물학적 어머니는 정신적인 자매라고 제안했다. 정신적인 자매라는 말은 여성을 부정어구로 규정하지 않고 긍정어구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리치, 위의 책, p.316 참조.

48) 차현숙, 「나비, 봄을 만나다」, 『나비, 봄을 만나다』, 문학동네, 1997, p.57

2) 사내는 빠른 동작으로 설설 끓는 찜통 속에서 털이 뽑힌 닭을 꺼내 힘껏 목을 내리친다. 그녀는 머리 속이 텅 빈 듯 닭의 감긴 눈 속으로 들어간다. 함지박 가득 차 있는 잘려진 닭머리는 하나같이 졸음에 겨워 눈을 뜰까말까, 하는 순간 뜨거운 찜통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털이 뽑히고, 그리고 목이 잘린다. 잠시 한눈을 팔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 눈이 감겼을 때 어처구니없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몸통을 잃어버린 머리가 함지박 가득 담겨 있다.[49]

3) 질식된 의식. 보이지 않는 열기 속에 굳어져 버린, 완고한 구도. 아이는 여자의 등에 업혀 있고,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별개의 고통 속에 있다. 여자는 아이를 잊었고, 아이는 여자를 잊었다.[50]

4) 깨는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커다란 무쇠솥 밖으로 탁탁 튀겨 나간다. 그녀는 깊은 정적을 가르는 그 소리에 망연히 귀를 기울인다. 소리는 점점 커져 갔다. 무엇이 가슴 한복판에 살같이 날아와 꽂혔는가.[51]

1)의 따가운 햇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멘트 길과 2)의 뜨거운 찜통 속에서 털이 뽑힌 닭은 제도 속에 갇혀 있는 그녀의 은유이며, 3)은 굳어진 제도 안에서 별개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와 그녀의 은유이며, 4)는 그 제도에서 벗어나기로 한 그녀의 은유이다. 이 의식의 전환 속에서 이루어지는 허리띠 풀기는 제도에서 벗어나는 그녀의 상징적 행위이다.

등으로 흘러내리는 땀은 그녀의 허리 중간쯤에서 살 속으로 파고드는지 몹시 쓰라리다. 치마의 허리띠를 푼다. 소매 없는 원피스에 유일하게 모양을 내주던 허리띠는 그녀의 한 손에 들려 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아버지는 빨간색의 원피스를 사주며 까만 벨트로 허리를 묶어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벨트를

인용.

49) 위의 글, p.69 인용.

50) 위의 글, p.56 인용.

51) 위의 글, p.55 인용.

풀면 여자는 수치심을 잃어버린단다.[52]

봄이 허리띠를 푼 그녀를 보고 "갈수록 날 닮아 가나 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단절되어 있다. 아버지와 본처,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 그녀와 남편, 봄의 부모, 봄과 다른 남성들. 그들은 서로 아무런 원한도, 이유도 없이 원수가 되어 윤회하는 아버지 이야기 속의 생명들처럼 제도에 함몰되어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업이 하늘만 아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 이유가 제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제도에서 벗어날 때 '나비가 봄을 만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과 대안의 실천이 있기에 그녀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처에게 하는 소지의식과 비나리는 제도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식과 분노까지 모두 화해시키고 용해시켜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토대로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 나오며

이상 살펴본 네 편의 텍스트 중에서 남성을 서술자로 내세운 「아내의 상자」는 부부의 서사로, 가부장제사회에서 불임부부가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보여준다. 규격화된 도시문명 속에서 남편은 평온으로 위장된 황폐한 껍데기의 삶을 살고, 아내는 의식이 마비된 채 폐기되고 만다.

이에 반해 서술자를 여성으로 내세운 「거울에 관한 이야기」, 「세상의 둥근 지붕」, 「나비 봄을 만나다」는 페미니즘 가족 로망스[53]이다. 페미니

52) 위의 글, p.59 인용.

53) Marianne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Indiana Univ. Press, 1989) ;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즘 가족 로망스는 여성의 목소리가 전면에 내세워지면서 남편은 주변인물로 밀려나는 특성을 지니고, 여성이 어머니와의 단절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 어머니와 딸의 결속관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견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하기에 이 세 텍스트는 불임여성이 모색한 불임 치유의 방략을 보여 준다. 「거울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다시 어머니와 손잡고 고단하고 억울한 현실, 단절되고 분열된 세상의 건널목을 건너가야 단절과 분열, 소외가 극복되리라는 전망이 암시되어 있고, 「세상의 둥근 지붕」에서는 모성 신화에서 벗어나 어머니와의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모성의 확대를 제안한다. 생물학적 모녀관계에서 정신적 모녀관계로 확장될 때, 세상은 양극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보다 풍요롭고 둥근 세상이 되리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 또 「나비, 봄을 만나다」는 현재의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자매애적 유대로 이루어진 대안가족을 제시하고 있다.

불임 모티브는 여성의 자기 정체성 확립의 기제로 작용한다. 모성만을 유일한 여성적 가치로 여기려는 가부장제에서 모성이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창조적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사실 남성은 모두 불임인데 불임의 불모성을 문제삼는 것은 언제나 여성이다. 불모성의 남성성을 중심으로 형성 유지되어온 가부장제의 불모성을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불임 치유의 방략은 필수적인 일이다.

참고문헌

문학사상사 편, 『1998년 제 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문학사상사, 1998.

현대문학사 편, 『96 올해의 좋은 소설』, 현대문학사, 1996.

차현숙, 『나비, 봄을 만나다』, 문학동네, 1997.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pp.7~15 참조.

김열규 외 공역,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김현자 외, 『한국여성시학』, 깊은샘, 1997.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박영옥 외, 『한국여성연구』 1, 청하, 1988.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여성사회연구회, 박영숙 옮김, 『여성사회학』, 한울, 1985.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볼스, G. 클레인, R.D. 편, 정금자 역, 『여성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6.
리치 아드리엔느, 김인성 옮김,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리몬-캐넌, S.,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이남호, 「인접언어의 혼란 II」, 『세계의 문학』, 1994.봄.
Michell Juliet, "Women : The longest Revolution", *New Left Review 40*, 1966 11/12.